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강원산림엑스포 붐업’ 입장권 구매 잇따라	1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산림엑스포 입장권 구매	1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산림엑스포 입장권 1,000장 구매 약정	2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입장권 구매	2
연합뉴스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입장권 ...	3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서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4
강원도민일보	23면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최선… 대한민국 농업 중심축 역할"	4
江原日報	21면	“여성농업인 힘 모아 기후 위기·인력 부족 극복”	5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원주시-세원 선루프 공장 증설 투자협약	5
일간투데이	15면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위한 소통	6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간담회	7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 설치' 건의	8
江原日報	온라인	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발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건의	8
춘천MBC	온라인	접경지 발전 위한 특별 회계 설치 건의	9
江原日報	02면	“도지사 자문 위원 200명?” 자치시대위 우려 목소리	9
江原日報	03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회의	10
江原日報	03면	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 최승순 자치도의원 선임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에 최승순 의원	10
江原日報	16면	“광덕터널 접경지 특수성 감안 꼭 필요”	11
강원도민일보	22면	하석균 도의원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11
江原日報	21면	하석균 도의원 의정 대상	11
江原日報	17면	"서핑성지로 뜬 양양, 이면의 주민 소음 고통 다룬 기사 써...	12
江原日報	16면	철원 양성평등대회 성료	13
강원도민일보	22면	"여성회 단합된 마음 존경" 강원도 시·군 한마음 여성대회	13
MS투데이		(기획) 강원의 싱크탱크는 어쩌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됐나[...	14
MS투데이		(기획) 강원의 싱크탱크는 어쩌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됐나[...	15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춘천 신북읍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모금 전달식	1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엄윤순.강정호.박호균.윤길로.전찬성.최종수.홍성기...	17
강원도민일보		[동정] 윤길로(영월·왼쪽)·최종수(평창)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동정] 홍성기(홍천) 도의원·엄윤순(인제)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7
江原日報	01면	'129억 적자' 도내 공공의료원 경영난 신음	18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국내 첫 글로벌 혁신특구 도전	19
강원도민일보	02면	"양양 난개발 보도 파문 심각하게 인식…상황 예의주시"	20
강원도민일보	11면	"수돗물서 불쾌한 냄새" 강릉 전역 불편 호소	20
江原日報	13면	생애 최초 창업지원금 속초시 사업 조기마감	21
江原日報	13면	고성 평화지역 16개 사업장 시설 현대화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독감 유행 심상치 않다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의원 '질문권' 논란일으켜서야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추석 앞둔 임금체불 악순환, 특단 대책 세워야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붐 조성에 달렸다	26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기원' 입장권 구매 동참식을 개최했다.

'강원산림엑스포 붐업' 입장권 구매 잇따라

도의회·이랜드 동참

개막을 8일 앞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붐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기원' 입장권 구매 동참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입장권 1,000매 구매를 약정했다. 구매한 입장권은 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용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동참식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의장을 비롯해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김기철 경제산업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박길선 교육위원장, 김동일 산림엑스포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은 "엑스포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랜드파크·리테일(총괄대표:윤성대)도 이날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2만매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윤성대 대표는 "이랜드파크 본사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가 개최돼 기쁘게 생각하고 임직원 모두가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조직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영·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도의회 산림엑스포 입장권 구매 도의회(의장 권혁열)가 13일 도청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와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취약층 지원 입장권 1000매 구매를 약정했다. 사진 제공=도의회

KBS 춘천

2023년 09월 13일 (수)

강원

강원도의회, 산림엑스포 입장권 1,000장 구매 약정

강원도의회가 오늘(13일) 강원도청에서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입장권 구매 동참식을 열고 입장권 1,000장 구매를 약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구매한 입장권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용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현서

연합뉴스

2023년 09월 13일 (수)

사회

강원도의회,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입장권 구매

(춘천=연합뉴스) 13일 오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입장권 구매 동참식이 열려 김진태 도지사(왼쪽)과 권혁열 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연합뉴스

2023년 09월 13일 (수)

종합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입장권 구매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강원도청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입장권 구매 동참식을 했다.

도의회는 입장권 1천매를 구매하기로 했다.

구매한 입장권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용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동참식에는 권혁열 의장을 비롯해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김진태 지사, 김동일 산림엑스포 상임부위원장이 자리했다.

권 의장은 "산림엑스포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간담회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청 예산관계관 등과 함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를 한다.

예결위 위원들은 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의견 등을 공유한다.

이무철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기초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사일보 등 47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4면

춘천서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가 주최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1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심창보 한국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장과 7000여명의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관련기사 2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23면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최선… 대한민국 농업 중심축 역할"

춘천서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김온희·박종관 회장 장관 표창

오늘까지 농산물 전시·체험행사

13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임원단들이 입장 후 인사하고 있다. 서영

전국여성농업인들이 춘천에서 미래농업 발전에 힘을 모으고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앞장서기로 했다.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1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힘! 여성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주제로 전국에서 약 7000여명의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심창보 한국후계농업경영인도연합회장 등도 참여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회원 51명에게 표창장이 전달됐다.

김온희 한여농철원군연합회장과 박종관 한여농홍천군연합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박금순 한여농춘천시연합회장이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진숙녀 한여농인제군연합회장이 한여농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대회기간 동안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전시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체험행사, 안전 및 응급처치법 교육, 기부행사 등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숙원 한여농중앙연합회장은 "한여농중앙연합회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피부로 와 닿을 여성농업인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연옥 한여농도연합회장도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축에서 여성농업인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농업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존경하고 춘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 출범 때부터 쌀값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는 쌀값이 많이 올라왔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여농은 정부의 파트너로서 언제든지 농업인과 국민들을 위해 쓴소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지원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 소멸, 농촌 소멸의 시대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여성 농업인 덕분"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21면

"여성농업인 힘 모아 기후 위기·인력 부족 극복"

춘천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7천명 참가
김희숙-이기선씨 대통령표창 등 유공회원 51명 수상

전국 여성농업인들이 춘천에 모여 화합을 다졌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1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힘! 이번 여성농업인의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2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송연옥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7,00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연합회원들은 직접 농사 지은 쌀 3,000kg을 김진태 도지사에게 기증했다.

이날 열린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희숙·이기선씨가 대통령표창을, 현정애·김향숙씨가 국무총리표창을, 박종관(한여농 홍천군회장)·박점희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51명의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막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장기자랑 및 축하공연을 함께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14일에는 강원지역 농업 현장 및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이 이어지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회식이 13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이숙원 중앙연합회장, 송연옥 도연합회장 및 여성 농업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진태 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이 기후 위기,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책임지는 여성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내년 농업 예산 증액 및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복지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숙원 중앙연합회장은 "지난 27년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 더 탄탄한 연합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송연옥 도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전국의 여성농업인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보상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미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2면

강원자치도-원주시-세원 선루프 공장 증설 투자협약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자동차 필터 시스템 전문기업인 ㈜세원(대표:이정우)은 14일 오후 3시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자동차 선루프 제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남진우 강원자치도 산업국장, 이정우 ㈜세원 대표이사,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최기영기자

일간투데이
dtoday.co.kr

2023년 09월 14일 (목)
지역 15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위한 소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 이하 예결특위)는 14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의견 등 정보공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무철 위원장은 "예산편성 기초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도출되도록 집행부와의 소통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년 09월 13일 (수)

종합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간담회

김수미 기자

14일 오후 4시 30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 이하 예결특위)는 14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의견 등 정보공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무철 위원장은"예산편성 기초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도출되도록 집행부와의 소통능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국세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미 기자 gwnews@hanmail.net

시사일보, 누리일보 등 36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4면

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 설치' 건의

긍정 검토 약속…내년부터 반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엄윤순)가 13일 김진태 도지사에게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건의문을 내고 "접경지역은 대부분 국고보조인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도 자체 특별회계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을 일부 추진했으나 이마저 올해 일몰돼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이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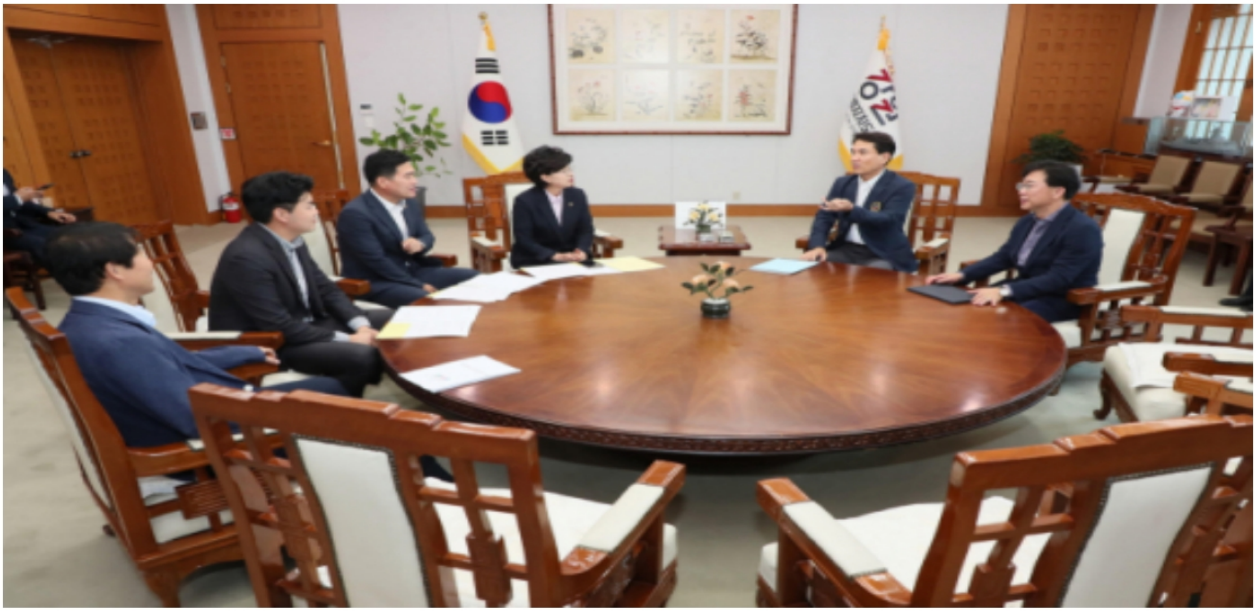
이날 엄윤순(인제)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현(화천) 부위원장, 김정수·엄기호(철원) 특위 위원은 김 지사와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이같은 건의안을 전달했다. 엄 위원장은 "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9월 13일 (수)
종합

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발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건의

13일 김진태 지사와 긴급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엄윤순)는 13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긴급 간담을 갖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가 13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긴급 간담을 갖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엄윤순(인제) 접경특위 위원장, 박대현(화천) 부위원장, 김정수(철원).엄기호(철원) 도의원이 참석,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이 국방개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해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 의원들은 접경지역이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기금같은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윤순 접경특위 위원장은 "최근 세수부족으로 강원자치도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춘천MBC

2023년 09월 13일 (수)

강원

접경지 발전 위한 특별 회계 설치 건의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개발 촉진 지원 특별위원회가
접경지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를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위원들은 김진태 지사를 만나
국방개혁으로 접경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고령화로 지역 성장
동력을 잃고 있지만 강원도 자체
특별 회계인 균형 발전 특별 회계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접경지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해
관광 인구를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접경지 맞춤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시사일보, 문화매일 등 41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2면

"도지사 자문 위원 200명?" 자치시대위 우려 목소리

설치 조례 15일 본회의 상정… 자문수당 연간 9천만원 소요 예상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할 도지사 소속 기구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두고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원 규모가 최대 200명에 이르고 연간 전체 자문 수당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 조례안은 도정의 추진 방향과 새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 자문 역할을 맡을 위원을 200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도정 자문 역할을 담당한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40명이라는 점을 고려, '친위대'를 구성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혹여 도지사의 사조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발이 만만치 않자 자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와 인적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문관현(국민의힘·태백) 도의원 역시 "(위원장 등으로 선임될) 특정한 사람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잘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번 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자문 수당에 비용이 발생하며 연간 9,000만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명 가운데 50명가량을 공모하고 이외 도의회와 도 실·국,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길탁 강원자치도 행정국장은 "타 도의 선례들은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3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3면

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 최승순 자치도의원 선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선임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위원장 선임은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이 지난달 특위 위원장을 사임하며 이뤄졌다. 활동기간은 2024년 6월30일까지다.

최승순 신임 특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특위 기간 동안 의원들의 높은 식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특위 목적을 달성하겠다"며 "워크숍, 간담회 등을 열고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2면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에 최승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순(강릉·국민의힘·사진) 의원이 선임됐다.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는 13일 제32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남은 기간동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고, 지지해준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높은 식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기획행정위원장에 선출된 김길수(영월·국) 특위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이뤄졌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지역 16면

"광덕터널 접경지 특수성 감안 꼭 필요"

〈화천~포천〉

주민들 균형발전은 물론 군 작전성 향상도 기대

【화천】화천 광덕터널 개설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3일 화천군 사내면사무소에서 열린 광덕터널 개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은 "터널이 개설되면 광덕고개를 통과하는 시간은 현재 26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는 만큼, 균형 발전은 물론 군부대의 작전성 향상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덕고개 지방도 372호선은 사내면~경기 포천시 이동면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이지만 11.3㎞의 전체 구간 중 급커브가 57곳, 급경사는 14곳으로 전체 노선의 75%가 위험 구간이다.

박대현 도의원은 "물류 차량은 물론 구급차, 군 작전 차량이 고갯길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겨울철에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터널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이업 군의장은 "광덕터널이 개설되면 수도권으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 관광 산업 등 강원영서북부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정책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22면

하석균 도의원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하석균(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한 '제18회 2023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3일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21면

하석균 도의원 의정 대상 하석균(국민의힘·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어워즈에서 의정 부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았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특집 17면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2023년 제5차 회의

2023년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5차 회의가 지난 6일 본사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8월 보도된 강원일보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 강원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지난 6일 본사 소회의실에서 8월 지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남덕기자

"서핑성지로 뜬 양양, 이면의 주민 소음 고통 다룬 기사 써달라"

김풍기 강원대 교수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조희숙 강원대병원 부원장

심훈 한림대 교수

류인출 도의원

김준래 사단법인 스마일강릉 이사장

정별님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김풍기 "개발로 인한 도민 삶의 명암 함께 조명해야"
하광윤 "민간인 폭발물 피해 보상 문제도 다뤄달라"
조희숙 "건강, 지역책임을 묻다 기획 좋은 시도였다"
심 훈 "스포츠 기사 비중 높이고 많은 지면 할애해야"

류인출 "오대산 사고본 관련 꾸준한 후속보도 기대"
김준래 "지역내 선행 소개·미담기사 더 많이 실어달라"
정별님 "젊은이들에 인기있는 영상 콘텐츠 강화를"

△**김풍기 위원장**=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독자위원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딜레마인 거 같다. 지자체 입장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경제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명암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양양을 예로 들면 몇 년 사이에 양양은 최고 서핑의 성지로 부상했다. 많은 사람이 오고 집값도 오르는데 정작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낮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거의 새벽 2~3시까지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한여름에도)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을 닫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냐. 강원일보가 도민들의 삶의 명암을 함께 짚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광윤 위원**=지뢰 피해자 문제관련 기사를 봤다. 물론 인도적인 무기가 있을 수는 없지만, 지뢰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무기다. 지뢰 피해자 문제는 2001년도에 관련 조사나 공부를 했었는데 6·25전쟁 이후에 지뢰 피해자 보상을 해줬었다. 그런데 폭발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았다. 불발탄, 수류탄 등은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시적인 특별법이었지만 폭발물에 의한 민간 피해 문제도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희숙 위원**=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박서화 기자의 '건강, 지역책임을 묻다' 관련 내용이다. 실제 박서화 기자와 취재를 함께 가게 된 덕에 기자의 삶을 밀착 취재하게 됐다. 나는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 거기에 철원 등에도 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팩트를 담아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를 느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는 기획이라고 들었는데, 강원일보가 정말 잘한 시도인 거 같다. 제목도 기대되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어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도입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자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건강자치가 특별자치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만율로 10년째 1위와 2위를 겨루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인데 왜 비만이 많냐고 하시는 분이 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해 특화된 것들도 있지만, 도민들 차원에서도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심훈 위원**=이번에는 후쿠이 신문과 강원일보의 스포츠면을 비교해 봤다. 강원일보의 경우 스포츠 자체에 대한 1면(에 게재된) 기사는 8월자에는 없었다. 후쿠이 신문의 경우 후쿠이현에서 일어났던 초·중·고등학생 스포츠 출전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일본 같은 경우 스포츠에 있어서 3개 면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무래도 프로 스포츠 위주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여자 배구, 여자 하키, 여자 조정, 럭비, 펜싱, 체조 등등 다양한 종목이 소개됐다. 사실 저널리즘에서는 한국 신문을 분석할 때 남성중심적 결론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후쿠이 신문은 여성 그림이 스포츠면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스포츠 신문 기사들이 사실상 한 기사당 하나의 사진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팀원 전체가 출전하는 사진이나 입상한 사진을 넣더라. 그래서 참가자들이 누군지 공유할 수 있도록, 참가자 자신들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었다. 스포츠면도 지역 신문 참가했던 그런 선수들과 가족들을 함께 다루면 지역에서 조금 더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류인출 위원**=오석기 기자가 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관련 기사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반환에 큰 공을 세우신 것 같다. 또 강원일보에서 단독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10월26일에 개관한다고 보도를 해주시기도 했다. 기사를 보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숨겨져 있어 좋았다. 박물관이 개관하고 나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실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이 갈 부분이라 생각한다. 강원일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준래 위원**=강원일보 기사에서 아녀소사이어티 기획에 대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기다렸던 기사가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아녀소사이어티가 지닌 가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선행한 부분이 더 많이 담겨서 알려졌으면 좋겠다. 저 역시 신문 기사에 아는 분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낸다. 그런데 지난 8월27일 (민주평통) 회장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강원일보에는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후 8시간 뒤에 기사가 올라오더라. 그런 부분에서 신속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미담이나 지역에 선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이 되길 바란다.

또 춘천, 원주, 강릉지역은 지역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두 개 지역이 실리다 보니 어떤 지역은 아주 작게 나올 때가 있고 다른 지역은 크게 나오고는 부분도 있다. 차라리 춘천, 강릉, 원주의 경우 단독 지면을 검토해 보면 좋을 거 같다.

△**정별님 위원**=요즘 젊은 사람은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포털에 강원일보를 검색하면 강원일보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기사를 클릭해서 보기보다는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는 숏폼 뉴스를 자주 본다. 1분 미만으로 축약해서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 등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더 자주 보는 것 같다.

이번 춘천 불법 도축장 관련해서 숏폼으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젊은 분들은 유튜브 쇼츠를 자주 보는데 강원일보TV가 많이 노출되면 구독자 수도 늘고 반응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영상 크기도 키우고, 돌발영상처럼 소리도 재미나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심은석 편집국장**=정별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도 젊은 독자들 유치를 위해서 숏츠 유튜브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쪽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있는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미디어국에 전달해 보겠다. 또 미담이나 아녀소사이어티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노출시켜서 같이 동참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모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원일보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기사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 최근 강원일보는 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는 기사를 시작했다. 양양이나 동해안 개발 부분 등과 관련해 명과 암을 잘 다루겠다.

정리=김민희기자 minimi@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지역 16면

철원 양성평등대회 성료

【철원】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20회 철원군 양성평등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철원군여협은 13일 오후 2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이현종 군수 부부, 정문걸 철원교육장,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원현순 김진태지사 부인,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 최계숙 철원군여협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여성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1세기 남녀평등헌장 낭독과 함께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서양숙씨 외 11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김대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22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주최·주관한 2023년 강원도 시·군 한마음 여성대회가 13일 오후 강원지방경찰청 대룡마당에서 개최됐다.

"여성회 단합된 마음 존경" 강원도 시·군 한마음 여성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주최·주관한 2023년 강원도 시·군 한마음 여성대회가 13일 오후 강원지방경찰청 대룡마당에서 개최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임미선 도의원, 송재영 2군단 방첩부대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여성협의회 회장들과 400여명의 여성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한 회원 39명에게 도지사·도의장표창과 경찰청감사장이 전달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18개 시·군 여성회 봉사정신과 자유가치실현운동을 위한 여성회의 단합된 마음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보화 여성협의회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탄생과 함께 신임회장으로서 강원여성협의회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여성회장,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부회장은 "튼튼한 안보의식과 국민의 행복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하자"고 말했다. 박재혁

2023년 09월 14일 (목)
MS투데이
정치

(기획) 강원의 싱크탱크는 어쩌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됐나

진광찬 기자

[강원연구원 어디로 가나] 상. 밥값 못하는 연구원
부진한 연구 실적에 본연의 임무 미흡 지적
검증 안 된 연구 결과에 도정 사업 좌초돼
외부용역 과제 비율 39%?"출연금 부족해서"
공직자조차 못 믿어, 어용기관으로 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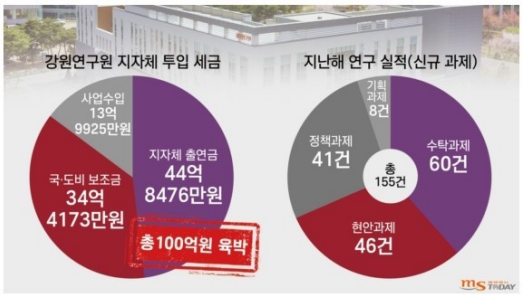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싱크탱크로 출범한 강원연구원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표로 1994년 6월 설립했다.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 비해 연구 실적은 부진하고, 수동적인 연구에 매몰돼 '지역 발전 모델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부터 이어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전문성 논란에 이어, 최근엔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기관장 경고'라는 초유의 행정 처분까지 받았다. MS투데이는 강원연구원의 부진한 연구 실적과 방만 운영의 실태를 2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5억9000만원을 들여 강원연구원에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올해 6월11일)에 앞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정안 심사 전 법안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당초 예정된 연구 기간은 올해 3월까지였으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6월에 열렸고 연구 결과물은 7월에야 나왔다. 그 사이 강원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자치도 출범 이후에 완료된 것. 강원연구원 측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청 특별자치국과 협업했던 만큼 연구 결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일은 용역으로 돈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강원연구원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지자체에서 100억원에 육박하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구 결과물을 보면 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비전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위해 출연자인 도와 시군 등으로부터 받는 한 해 출연금과 보조금(연구용역비 포함)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내놓은 결과물은 지난해 기준 155건의 연구 보고서로 집약된다. 더불어민주당 류인출(원주) 강원도의원은 "강원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일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 강원도가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것만 봐도 연구원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강원연구원이 연구는 운영 방향 자체도 잘못됐고 밥값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강원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다. 횡성에서 화물 전기차를 생산하는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경영난을 버티지 못 하고 회생개시 신청서를 냈다. 앞서 도와 횡성군은 2020년 11월 총 233억원을 출자해 생산공장을 지은 뒤 디피코에 임대했다. 강원연구원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강원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형화물전기차를 강원도 주력 전기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와 제안을 내놓은 데 따른 사업이다. 도는 연구원의 제안을 기반으로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에 불과했던 디피코를 완성차 제조업체로 만들어 3조원대 생산 유발효과와 76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봤지만 완전히 잘못된 추산이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에 투입된 세금이 총 1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연구 실적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연구원이 자치도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대신 강원자치도나 시군이 돈을 주고 의뢰하는 연구에만 수동적으로 몰두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 실적(신규과제 기준) 155건 가운데 60건(39%)이 지자체, 협약체결기관 등과 계약을 통해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수탁 과제였다. 올해 발간한 '세월교 보완과 보존 방안'이라는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면 7페이지까지 춘천 세월교 역사와 관련 보도 내용, 다른 지자체 교량 관광자원화 사례를 나열한 후 마지막에 세월교를 등록 문화재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끝낸다. 익명을 요구한 기초지자체 공직자 A씨는 "지자체가 필요한 연구를 주문하면 연구원이 짜맞추기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며 "특히 단체장 공약 사업이나 주력 사업에 대한 수탁과제는 대부분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반면 연구원이 미래 정책이나 국책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는 기획과제는 지난해 8건에 그쳤다. 인원 규모가 비슷한 충북연구원이 같은 기간 기획과제 19건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과제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강원도 출연 비중이 작아 생긴 현상"이라며 "출연금이 100억원 정도 돼야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 정규직 직원 연봉은 인원 규모가 비슷한 충북·경북연구원보다 20~30% 높은 수준인 8300만원이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장 연봉은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광역단체장과 비슷한 수준인 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위원 등 정규직 직원 1명당 평균 임금은 강원도 출연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8300만원(2021년 기준)이다. 이는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충북연구원·전북연구원(각각 6300만원)과 비교하면 20~30% 높은 수준이다.

도청 내부에서도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월 외부용역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도 강원연구원의 미흡한 연구 결과가 이유 중 하나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기관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청 소속 공무원 B씨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박사·교수 수준에서 생각하는 이상만 그린 연구 결과가 나와 불만을 제기한 직원들이 많다"며 "다른 대안이 없어 용역을 의뢰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면피용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이 잘못된 연구나 부실한 연구로 강원도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연구원은 잘못된 연구 결과로 파행을 겪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런 문제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도정에서도 매년 의례적인 업무보고 수준으로 넘기고 있다"며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내외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편 예고 : 9월22일자 매거진은 강원연구원의 계속된 일탈과 그 중심에 선 현진권 원장의 행적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제보를 기다립니다. lightchan@mstoday.co.kr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江原日報
2023년 09월 13일 (수)
종합

[포토뉴스]춘천 신북읍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모금 전달식

강원일보 등이 주최하는 '2023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캠페인'의 모금 전달식이 13일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참석자 명단-신북읍

신북읍 이장협의회 회장 김준해 강원도의원 양숙희 신북읍 번영회 사무국장 변성근 이종은 김다현 정석영 박효수 김선진 최명옥 이복순 이인글 박종만 소양강댐노인복지관 김과연 윤순복 민천예 조순자 춘성중학교 학생일동 박선영 김연희 이강민 천전초등학교 학생일동 김다은 천정초등학교 5학년 남가인 김숙자 김구용 송은옥 홍정표 박민우 임복순 최명자 안인애 임홍택 주남수 김연순 오경섭 이광현 참나무 숯불 닭갈비 신북읍 자율방범대 한여농 신북읍회 소양댐 산채바우 장경빈 김호진 윤용의 장옥한 정용준 신북읍 우체국장 서지숙 조돈선 권임연, 신정심 윤병완 김봉희 김정은 김주순 최순자 김남옥 김성구 함종진 이금순 이영옥 조삼순 공순옥 목영균 최춘자 신북농협 소양댐휴게소 이은숙 박봉남 김영애 전종국 안차옥 발산1리 성수창 신북읍 농가주부회장 유명연 춘천통나무집닭갈비 대표 김형우 신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신림 신북읍 생활개선회장 김복묵 신북읍 장목반연합회장 김대림 신북읍장 홍미순 샘밭장터 순이네 홈에버그린 원장 박진숙 춘천굴절스카이 대표 김용기 소양강댐노인복지관장 허미숙 도지골 재원산업 파머슨가든 김분선 송준배 이슬 김도 신북읍 생활개선회 홍소연 김응봉 신북읍 대장 전홍렬 박순옥 국립춘천숲체원장 최정호 국립춘천숲체원 김경포 국립춘천숲체원 이광인 김태규 국립춘천숲체원 전성렬 국립춘천숲체원 고하람 국립춘천숲체원 최효정 국립춘천숲체원 윤은빈 박준성 국립춘천숲체원 이주은 안민찬 국립춘천숲체원 박준성 국립춘천숲체원 송애경 이동수 장호닭갈비 대표 홍동수 국립춘천숲체원 신유진 정양석 유상원 황지민 천전7리 이향화 이영희 소양호 생명사장지킴이 사업단 박종흠 정광용 양복옥 춘천그린에너지(주) 대표 정문영 신북읍 주민자치회장 우미숙 시골막국수 신북읍 주민자치회 김수라 (주)더나우 주식회사 토담 대동공업(주) 춘천대리점 이만우 생활안전교육사회적협동조합 황희수 신북농가주부모임 정양화 김정화 신북읍 번영회 천전초등학교 학생회장 이꿈 유예지 노현영 신북읍 노인회 명가막국수 산천2리 노인회 박경진 소양호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단 이순자 춘성중학교장 한치만 신북읍 이장협의회 북산면 노인회장 최병한 강원테크노파크 신북읍 상가번영회 한국수력원자력 다경, 다현 어린이집 원아 K-water 소양강댐지사장 박병국 우옥화 최하용 김청정 남촌 막국수 분점

江原日報

2023년 09월 13일 (수)

종합

[동정] 엄윤순.강정호.박호균.윤길로.전찬성.최종수.홍성기 도의원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속초).박호균(강릉).윤길로(영월).전찬성(원주).최종수(평창).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4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중간보고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동정

윤길로(영월·왼쪽)·최종수(평창) 도의원은14일오후 2시도의회에서열리는도의회치수연구회중간보고회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동정

의회치수연구회중간보고회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은14일오후 2시도의회 세미나실에서열리는도의회치수연구회중간보고회에참석한다.

홍성기(홍천) 도의원·엄윤순(인제) 도의원은14일오후 2시도의회에서열리는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1면

'129억 적자' 도내 공공의료원 경영난 신음

〈올 상반기 기준〉

강원 5곳 병상가동률 급감 … 의료진 수급·병원 운영 차질

속초 4년새 '81%'→올해 '28%' 전국서 가장 높은 감소율

팬데믹 상황 전담 병원 보상 확대 … 경영 정상화 지원 절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 의료원이 올 들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운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진 수급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등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5개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4년 만에 적게는 26%부터 65%까지 떨어졌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2019년 81.81%의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올 6월 기준 28.58%까지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87.37%를 기록했던 원주의료원은 60.29%까지 떨어졌고, 강릉의료원은 63.2%에서 44.1%, 영월의료원은 81.51%에서 57.2%까지 감소했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87.91%에서 64.63%로 떨어졌다.

병상가동률 하락으로 6월 말까지 속초의료원은 39억2,400만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척의료원은 27억4,800만여원, 강릉의료원 22억 4,300여만원, 영월의료원 22억여원, 원주의료원 18억1,800만여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수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데다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도 확대되면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척의료원의 경우 일일 평균 외래환자 수가 2019년 기준 648.4명에서 올 6월 기준 794명으로 증가했고, 강릉의료원도 368.7명에서 372명으로 늘어나는 등 회복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은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다"며 "올해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비상운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2면

강원자치도 국내 첫 글로벌 혁신특구 도전

중기부에 공모 신청서 제출… 첨단의료 특화단지 구상 승부수

법률 금지 행위 이외 모두 허용… 참여 기업 수출 지원 등 혜택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본보 5월18일자 1면 보도) 지정에 도전한다.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를 결합한 '첨단의료' 특화단지 구상으로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글로벌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전국 2곳의 전국 첫 특구를 지정한다. 첫 지정 이후 2027년까지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한다.

신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선진국 기준을 적용해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구참여기업은 정부 및 대기업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공모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강원자치도의 주무기는 2018년 디지털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디지털헬스와 2021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정밀의료 산업이다.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헬스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34개 특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디지털헬스 규제특구의 국내 매출액은 420억원, 수출액은 288만달러에 달했다. 또 38개 기업을 신규 유치했으며 189명을 신규 고용했다. 올 8월에는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밀의료특구도 2021년 8월 사업 시작 이후 2년간 3개 기업을 유치하고 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디지털헬스의 고도화, 의료데이터의 결합 등을 통한 첨단의료 영역의 특화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하지만 10월 전국 첫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02면

"양양 난개발 보도 파문 심각하게 인식…상황 예의주시"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임원회의
필요시 연합차원 단체행동 결의
내달 11일 구체적 대응안 논의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임원회의가 13일 오전 도청 청사에서 전영록 도지부장과 시군 회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속보=양양지역 주민들이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한 일간지 보도에 반발(본지 9월 7일자 2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 필요할 경우 단체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3일 오전 도청 별관에 위치한 도지부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최근 양양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운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양양군지회장은 임원들에게 그동안의 보도내용과 해당 대기업과의 관계 등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양양군지회장의 설명 내용에 공감하고, 내달 11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참가를 위해 도내 이장단 250여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규탄 캠페인 개최 등의 방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양양군 현남면이장협의회와 전국이통장협의회 양양군지회는 회의를 열고 '양양군 해변 난개발 조장' 보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6개 읍·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운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양양군지회장은 "사업이 반려됐음에도 마치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져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18개 시·군이 통장연합 차원에서도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록 지부장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양양지역 사회에서 해결에 노력을 해보고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때는 도지부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지역 11면

"수돗물서 불쾌한 냄새" 강릉 전역 불편 호소

흙·곰팡이 냄새 등 악취 지속
지역 커뮤니티 등 대책 촉구
원인은 오봉저수지 수온 상승
시 "인체 무해… 현재 정상화"

강릉시 전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등이 나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수돗물에서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설거지와 빨래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동네가 아닌 시 전역에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 커뮤니티 등에는 '수돗물 냄새가 심하게 나요', '물에 흙냄새가 나서 쌀 씻을 때 생수로 헹궈야겠다', '빨래를 해도 비릿한 냄새가 나는 통에 빨리 해결이 필요하다' 등 우려 글이 다수 올라왔다. 또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돗물에 이상함을 감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식수관련 안내문자를 돌리기도 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수온상승으로 조류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맛과 냄새 유발물질 (지오스민, 2-MIB)이 검출돼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물질은 인체에 무해해 음용에는 문제가 없고,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 3분 이상 끓여먹으면 맛,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쾌한 냄새가 유발돼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어 시민들은 빠른 조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민 이모(41)씨는 "며칠 전부터 흙냄새가 심해 생수를 사서 쓰고 있고, 피부가 성인보다 약한 아이들을 씻기는데도 괜히 걱정된다"며 "물은 당장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보니 향후 재발하지 않게 시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화된 정수처리 작업을 통해 물 공급을 정상화했고, 기존 수도관에 남아있는 맛·냄새 물질이 포함된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1~2일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오봉저수지의 취수위치 변경, 활성탄 투입을 비롯한 정수장 청수처리공정 강화 등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지역 13면

생애 최초 창업지원금 속초시 사업 조기마감

2개월 만에 예산 소진
50개 업체에 1억 지급
시 "지원책 지속 발굴"

【속초】속초시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올 6월15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당초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자들이 몰리며 접수 2개월만인 지난 8월 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조기 마감했다.

지난 2개월간 신청자는 54명으로 이 중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 등 적정성 심사를 거쳐 50명에게 1억원을 지원했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속초에 주소를 두고 2022년 1월1일 이후 속초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창업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이 먼저 지출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속초시에 제출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김승태 달곰즈토스트 대표는 "창업 초기 구입한 제빙기가 음료 제조에 적절하지 못해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지원받은 창업지원금으로 제빙기를 새로 구입하게 돼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처음 시행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이 초기 창업자들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등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속초시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지역 13면

고성 평화지역 16개 사업장 시설 현대화

업소당 최대 1,600만원
22일까지 신청 접수

【고성】고성군은 평화지역 군 장병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4차)'을 추진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 중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 체육, 문화, 음식점, 서비스업, 도소매 등의 업종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추가모집은 16개 사업장에 2억6,600만원 규모로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최근 5년간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 지원은 1회만 가능하나, 기 지원 수혜자 중 보조 지원 총액이 1,6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 총액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2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033)680-3378)으로 문의하거나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1, 2, 3차 사업을 통해 72개소 사업장에 총 9억4,400만여원을 지원했다.

송용찬 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4차가 올해 마지막 지원인 만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천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사설/칼럼 19면

독감 유행 심상치 않다

-1년째 주의보, 호흡기 질환 확산 우려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통상 매년 9월 발령해 다음 해 8월 해제하지만, 1년 내내 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률이 줄고 면역력도 저하돼 독감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독감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아의 경우 폐렴, 뇌수막염,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도 중증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자체와 의료 당국도 독감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도내 독감 의심 환자 증가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35주 차인 지난 8월 27일~9월 2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수가 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2023년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31주 차 5.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의심 환자의 대부분은 7~12세와 13~18세 등 유아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마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방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이 풀리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준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중 집합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호흡기질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생층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구나 독감 수준으로 등급을 완화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사라지지 않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위생 수칙 실천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침할 경우 입을 가리는 등 위생 예절을 지켜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4일 (목)
사설/칼럼 19면

도의원 '질문권' 논란일으켜서야

-인사청문 질의 거부감, 집행부 견제·감시 목적 충실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성 차별적 질문이 포함돼 여성단체 반발로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련원을 이끌 적임인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의인 데다가 차별과 혐오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새끼 돌보는 것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많다"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성 역량 개발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여러 대안 제시도 나왔지만, 성차별적 질문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논점 자체를 흐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의원 개인을 넘어 지방의회 품격 내지 의원들 인상에 대해 긍정적일 수 없는 결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사적인 자리는 물론 공식석상에서 발언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실상 의원의 '질문할 권리'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 공무원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독주를 막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집행에 관한 견제·감시기관 위상이 부여돼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과 질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 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긴급현안에 대한 질의 기회도 수시로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 건수도 많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입니다. 단순히 집행기관에 정책 설명이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정도는 낮은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비판과 잘못을 추궁해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효과를 내는 질문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의원들이 현 집행부 정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것은 고삐 없이 달리는 말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면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이 질문권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성찰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부터 근래에 이르는 동안 입법 활동과 예산 의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질문 실적은 감소했다는 전국 경향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단체장의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 감시가 느슨했다는 방증입니다. 도내를 망라해 대집행부 의원 질문권 사용에 대한 실적과 경향 분석을 토대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과 지원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우수 질의에 대해선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의회사무국 업무도 강화돼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사설/칼럼 19면

추석 앞둔 임금체불 악순환, 특단 대책 세워야

추석 명절을 앞둔 임금체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290억9,68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체불임금 204억원보다 86억원 많은 금액이다. 체불임금에 시달린 근로자 또한 4,809명으로 전년보다 775명이 증가했다. 여기에다 기업은 부도, 서민들은 이자조차 내기 빠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도내 예금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0.11%에서 올 6월 0.29%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도 0.1%에서 0.17%로 0.07%포인트 늘었다.

8월까지 도내 290억여원, 작년보다 86억 많아
체불 업자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낮아
악덕 사업주 가정 파괴하는 범죄로 다스릴 때

임금체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을 부리는 사회악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임금체불이 쌓이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기업·산업 간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워 임금체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옮기거나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사회안전망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악덕 기업주가 부지기수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근로자나 여성, 외국인,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란 점에서 임금체불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제재인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및 명단 공개'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약한 수준이다. 실제 구속 사례도 드물 뿐만 아니라 벌금도 적게 부여되는 만큼 더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과 딸린 식솔의 생계를 이어갈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임금체불은 한 개인,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인 것이다. 즉, 임금체불은 형법상 절도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사회적 범죄다.

절도는 단지 돈과 물건을 훔칠 뿐이지만 임금체불은 돈과 노동자의 피땀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KTX에 부정승차하면 최고 30배의 부과금을 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내지 않으면 10배의 가산금을 무는 상황이다.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두세 배 정도의 부과금 등 불이익이 가해져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열정 페이' 같은 임금 후려치기가 성행하고 '배 째라'형 악덕 사업주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동안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우울한 추석 명절을 맞는 근로자는 없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붐 조성에 달렸다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산림엑스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제행사다.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엑스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위원회는 개막을 위한 막바지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붐업에 나섰다. 이미 전 세계 60개국이 행사에 참가할 것을 확정했다. 입장권은 벌써 13만7,000장이 팔리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추석과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까지 있어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엑스포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 4개 시·군 축제, 설악·금강권 단풍철과 맞물려 2020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왔던 경제 효과 4,700억원, 고용 창출 효과 5,000명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엑스포에서는 방문객 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DMZ 평화탐방 투어, 고성 온라인 테마별 스탬프 투어, 설악산 울산바위 말굽폭포 탐방,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 설악산자생식물원 숲 체험,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행사, 산림문화백일장, 온드림 숲속 힐링 교실, 설악문화제, 임산물 한마당 축제 등이다. 이처럼 전시관, 체험존, 휴식공간, 산책로 등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40개가 넘는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원산림의 무한한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들이다. 체험행사가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참여하는 관람객이 전시, 공연, 휴식과 함께 설악산 단풍, 동해, 가을축제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산림엑스포를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3%가 산림이다. 한국의 산림수도 강원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1.2%가 산림이다. 산림은 산업화 시대에는 저개발과 저성장의 족쇄가 됐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성장 동력이다. 탄소 중립 실현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산림엑스포는 대한민국과 강원자치도의 산림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1991년 고성세계잼버리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과 긍지를 지니고 있다. 이제 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시 한번 강원자치도의 역량을 보여줄 때다.